

경과보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가진 울산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이상한국회의원께서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에 선출 되시고 시당 산하의 각 상설위원장 임명에 따라 현 동구지역위원장인 황보상준위원장이 노동위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지난 9월 11일 노동조직 활성화 및 노동인이 존중받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가 노동자 권익, 부당노동행위 등에 앞장서서 뛰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다음과 같은 조직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 산하에 부위원장 체계를 분야별로 나뉘었으며, 또한 각종 본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부위원장에는 보건의료부분 부위원장, 금속부분 부위원장, 청년부분 부위원장, 화학부분 부위원장, 비정규직부분 부위원장, 운송운수부분 부위원장, 건설노동부분 부위원장, 여성노동부분 부위원장, 감정노동부분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9개 분야로 부위원장 체계를 두었으며, 또한 5개 본부로 나누었습니다.

5개 본부로는 노동정책본부, 부당노동방지본부, 조직정책본부, 여성노동인권본부, 노동안전보건본부 등으로 구분하여 보다 정책적인 노동위원회, 효율적인 노동위원회로 출발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저희 울산시당 노동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을 민주적으로 세분화된 조직구성을 위하여 울산시당 각 지역위원장님들께 추천을

받았고, 시당벤드 및 각 구군지역위원회 벤드를 통하여 당원들께 자천이나 타천 및 공개모집에 의하여 100% 민주적인 방법으로 울산시당 노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이상헌 시당 위원장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지금까지 2차례 회의와 1차례 외부행사를 가졌는데

첫 번째 회의는 지난 10월 15일 상견례와 함께 식사를 겸한 회의에서 노동위원회의 방향, 역할, 앞으로의 계획 등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의로는 11월 4일 울산시당에서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의 탄생을 알리는 발대식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노동위원회는 앞으로 5000명 노동당원 모집을 목표로 적극 나서자는 내용이며, 이를 위하여 울산 노동의 상생의 필요성과 노동존중에 대한 토대마련을 위해서는, 당이 먼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책을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다 더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노동현장 방문을 갖기로 하였고, 이를 중앙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외부행사는 지난 11월 7일 울산지역 정당 및 사회단체 등이 참여 시행하는 울산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에 대한 대시민 캠페인을 울산 남구소재 롯데호텔 앞에서 저희 노동위원회와 당원 당직자로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울산시당 노동위원회는 울산 5000명 노동권리당원을 목표로 될 것이며, 울산지역 노동자의 삶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한 노동위원회가 될 것임을 천명하며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박경종